



당뇨의 혈당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탁월한 당뇨에 좋은 웰빙 당조고추 개발



제일종묘사와 농촌진흥연구소 및 강원대와 공동으로 3년 연구 끝에 혈당치의 상승을 억제하는 AGI(A-Glucosidase Inhibitor)라는 기능성 물질을 다량 함유한 신 기능성 고추를 개발하였습니다.

AGI는 십이지장 등에서 탄수화물의 소화 흡수율을 저하시키는 효과가 있어 당뇨 등 각종 성인병의 예방과 치료에 이용되고 있는데 당조 고추를 당뇨에 걸린 쥐에 투여한 결과 식후 30분 후 혈당치가 120-150mg/de로 평소 180mg/de에 비해 상당한 혈당강화 효과를 거두었다.

정토원 주지 고봉 스님의 당조고추

“현대 불교는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지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농사를 찾던 중 새롭게 개발된 기능성 고추인 당조고추를 재배하게 되었다.” 평소 농사를 수행처럼 생각하던 스님은 대중들이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 수 있도록 당조고추에 천연항생물질(프로폴리스)을 살포하여 기능을 강화시키고 고추작물에게 나무아미타불 염불과 명상음악을 듣게하여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이 세상에 황금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고 있다. 또한 일체 친환경농법을 사용하여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7월 초 첫 출하를 앞두고 농협중앙회 식품검사소에서 농약잔류검사를 의뢰하여 280성분수의 농약을 검사한 결과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아 적합 판정을 받았다.



당뇨에 좋은 고추라 하여 “당조고추”

크기 및 색상

고추명은 당뇨에 좋은 고추라 하여 “당조고추”라 하였고, 이 당조고추는 다른 고추에 비해 20-50% 가량 크고 색상은 파피색이나 연노랑에서 오렌지색으로 크며 익을 때 일반고추와 같이 빨강색으로 익습니다.

맛

당조고추의 맛은 일반 고추 맛과 똑 같으며 안 매운것과 약간 매운 맛으로 구분됩니다.

혈당저하 체험

당뇨환자들이 식사 전후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식사를 하면서 당조고추 3-4개를 먹고 40여분 경과 후 혈당을 측정하여 보면 혈당 수치가 현저히 떨어져 있는 것을 직접 확인 할 수 있으므로 자신이 체험하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성인병 예방에 효과

성인병 예방을 위하여 장기 섭취를 하면 각종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고 된장이나 찜닭에 찍어 먹어도 되며 파프리카와 같이 생식용이나 샐러드로 만들어 먹어도 좋습니다.

품종

우리나라 고추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기능성고추입니다. A-Glucosidase Inhibitor 기능성 성분이 다량함유되어 혈당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으므로 세계최초 기능성 당뇨고추입니다.

농림부 산하 농림기술관리센터의 농림기술개발사업지원으로 육성된 품종입니다. 강원대학교 이해의 교수와 원예연구소 조명철 박사 제일종묘농산과 공동으로 연구, 육성한 품종입니다.



7월 첫 출시를 앞두고 “당조고추”가 필요하신 불자님들 전화주시면 “당조고추”에 대해 자세한 설명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 정토원 : 경북 군위군 소보면 복성리 22 (☎ 054-383-0407)

군포교의 원력으로 군장병들에게 부처님의 자비를 전하는 초코파이 고봉 스님... 군사모와 함께 오랜 기간 마음을情有 실천하고 계시다

군사모와 함께, ‘초코파이 보내기 운동’ 계속

군 포교를 통해 군과의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고봉 스님은 사비를 털어 초코파이를 군에 보내기 시작한 지 어언 8년 그 세월 속에 수천상자의 정이 그들 마음속으로 전해졌다. 따뜻한 가족 같은 정이 부족한 장병들을 위해 “죽는 날까지 계속할 것입니다 그 초코파이 하나에는 부모의 정이 그려져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스님. 대구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 장병들에게 초코파이를 보내는 것이 소원이라 한다. 고무신 바람으로 절을 나서 한달에 꼭 한 두 번은 군을 찾아 장병들 손에 따뜻한 온기를 나누고 때론 국수도 끓여주는 스님. 보다 활발한 활동을 위해 권순삼 초대회장을 중심으로 군사모(군장병을 사랑하는 모임)를 결성하여 함께 초코파이 나눔을 행하고 있다. 30여명의 군사모 회원들과 함께 (편지쓰기 운동)과 (북한에 초코파이 보내기 운동)을 계획하며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매마른 정서에 정을 불어 넣고자 오늘도 스님은 정을 담은 초코파이를 준비한다. “군에서의 인연법이 일생을 바꿀 수 있다.” 말하는 스님은 또한 철이 들고 어른이 되는 곳도 군대라고 말한다. 하여 10년, 20년 그 이상을 바라보고 스님의 범문과 진심의 정을 나누는 봉사의 그 인연으로 훗날 장병들이 좋은 일을 할 때 그것이 뿌린 씨에 대한 보답이라며 농부의 마음으로 정성을 들이는 것이다.

사진설명

아들, 제자 같은 군인들이 초코파이를 받고 고마워하는 모습과 훈련도중 맛있게 먹는 초코파이 속에 부모의 정이 그려져 있다 말하는 스님.



“우주의 기운은 자력과 같아서, 우리가 어두운 마음을 지니고 있으면 어두운 기운이 몰려온다고 한다. 그러나 밝은 마음을 지니고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살면 밝은 기운이 밀려와 우리의 삶을 밝게 비춘다고 한다. 더없이 안락하여 즐거움만이 있다는 그곳... 어디에 머물던 짐작이 없이 마음이 평화로우면 그곳이 곧 극락세계라 하였다. 정토원이 바라는 곳이라. 아침 일찍 오면 산세에 어느 순간 후두둑 하고 비가 내리더니 하루가 저무는 지금에도 여적이다. 처마에서 촉촉이 떨어지는 빗소리가 참으로 좋다. 산세에 연기가 자욱하니 피어올라 한편의 수묵화를 지천에서 보는 듯하여 마음에 고요가 찾아온다. 마음을 쓸어주는 정이 있을 때 세상이 아름다움을 정토원에서 느끼고 가는 바이다.”

